

농촌관광사업 평가 척도의 분석과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이성우** · 권오상* · 박호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한국농업전문학교)

The Evaluation of Indicators for Rural Tourist Farm with Path Analysis

Lee, Seong-Woo^{#*} · Kwon, Oh-Sang* · Park, Ho-Kyoun**

*Dept. of Agri. Eco. and Rural Dev., Coll. of Agri., SNU, Suwon, 441-744, Korea

**Lecturer in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적 요

본 연구는 정부가 농외소득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온 한국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따른 존속 여부의 원인과 경과 및 시사점을 밝혀 바람직한 미래 농촌관광의 토대로 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분석을 통한 간접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특색성은 투자 수익에 부(-)의 효과를 주지만 시설물이나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색은 매출증가에는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관광농원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시설투자와 경관유지를 통해 관광매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과, 생산자의 생산 및 비용함수가 투입 생산요소들만의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지속성을 결정하는 변인들 중, 상환능력, 호당소득, 농산물 판매액, 등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경영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설물, 농촌체험, 입식면적, 입식 다양성 등과 같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거나 관광농원의 매력(attraction)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직-간접적 효과를 통해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식특색성은 투자수익에는 부(-)로 영향을 주어 간접효과는 부(-)이지만 직접효과는 정(+)으로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었으나, 입식조건이나 기타 변인들은 비교적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광농원 사업지침 효율성 평가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 제시로 기타 농림부 사업 평가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초 농림부 내부에서 논의된 최초의 지표 및 지침들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농림부가 시행한 관광농원의 평가척도가 관광농원의 지속성여부를 효율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 추후 실시될 농림부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들에 대한 비중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용은 실증분석을 통해 기 실시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농림부 농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농림부

주요 사업으로 시행되어온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실태 및 사업 유지 추이를 분석하여 농림부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 척도들을 농촌지역 및 개별 사업체의 지속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둘째, 사업지속성에 대한 평가지침

교신저자(seonglee@snu.ac.kr)

을 내용별로 관련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및 우열을 분석하여 농촌관광사업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농촌관광사업 평가 척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농림부 정책사업의 평가척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논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과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농촌 어메니티와 관광 매력은 중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 성격상 결합생산(joint production) 형태로 농산물과 함께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 이용에 있어서 결합생산물들 모두에 배타성(excludability)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농촌을 방문하는 수요자는 무임승차(free rider)로 시장을 통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농촌 어메니티를 사용하여 효용을 증대시킨다. 이는 결국 농촌 어메니티 공급자의 잠재적 이익손실과 지속가능성 상실로 나타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농촌 어메니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시장기능을 촉진하고 농촌 어메니티의 외부경제효과를 농촌시장에서의 내재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사회에서의 시장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개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관광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농림부의 사업은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한국 관광농원사업의 성과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총체적 평가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사업주체인 농림부에서도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다른 관광상품과 차별화 되지 못한 채 개별경영으로 흘렀고, IMF 위기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부실사태가 속출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과잉투자자와 개인경영형태의 숙박요식업소로의 변질을 들고 있다(농림부, 2001). 박호균 외(2001)는 농림부의 관광농원 지원에 따른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에서 개별 지표의 순위 설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광농원사업은 정책사업이었으므로 본질적으로 정

객결과에 대한 평가 문제이나, 세부적으로는 1)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항으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있다는 시각과, 2) 공공부문의 개입이 농업에 많이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시각과, 3) 관광농원도 다른 사업체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사업경영주체인 농어민의 경영능력에 따른 경영악화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 상실 현상을 농림부가 실시하였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 상실의 본질과 과정을 규명하여, 이를 기반으로 농림부 운영지침(평가지침)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I. 연구 배경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박호균·정지웅, 2000)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농촌지역사회와 주변 농촌공간과의 관계 설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농촌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어메니티 등과 같은 도시우위형 자원에 대한 논의(OECD, 1999, 1996, 1994)다. 최근 농업의 시장경쟁력 저하로 각광받는 소득대체산업으로서의 농촌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복합적인 제반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우선, 농촌공간이 농촌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농촌관광은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Sharpley & Sharpley(1997)는 농촌관광이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사업자, 방문객, 관광자원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복잡한 상관관계 속에서 초래된 많은 마찰이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 접근방식이며 또한 유일한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문제는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지표 개발과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Sharpley & Sharpley, 1997).

지속성을 추구하는 현대 관광개발의 방향은 소규모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개발 형태를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다(Burns and Holden, 1995; Pearce et. al., 1996). 성공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 개발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계획 초기부터 반영하고, 개발비용과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며 누구를 포함하고 또 수집된 의사를 언제 고려해야 하는가이다.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가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Brandon, 1993).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의 기준들이 어떻게 측정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지표로 개발되어 이론적 가설이나 정책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가는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지만,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이들 기준들이 아직 포괄적인 가치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아직 기준들의 지표화 연구조차도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1990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1994년 농어촌정비법 및 동 시행령 등 법령에 의거하여 농어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정책목표와 의의는 1)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2) 농어가 소득에 기여하며, 3) 농어촌에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4) 관광자원의 생산화, 5) 지역개발촉진, 6)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 있다(농림부, 2001). 농촌 어메니티인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교류활동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휴식, 휴양, 새로운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 판매, 가공 및 특산물 생산, 관광 서비스 등 소득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책사업주체인 농림부에서는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다른 관광상품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개별경영으로 흘렀고, IMF 위기 이후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부실사태가 속출하였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실패의 주요 원인은 과잉투자와 개인경영형태의 숙박요식업소로의 변질을 들고 있다(농림부, 2001).

박호균(2002)은 관광농원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크게 두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정책추진차원에서 정책의 연구자료로써 관광농원의 실태와 경영상태, 그리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연구들로 유승우(1999), 유승우·김정연(1997), 류선무(1995), 서종혁(1995), 농협중앙회(1993), 박호균 외(2001) 등이다. 두 번째 연구방향은 농촌관광 수요자 분석과 선호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 류선무(1995), 한국관광공사(1996) 등이다.

이들 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온 관광농원사업의 주요 문제점들은 1) 관광농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품개발과 수요자 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2) 비수기나 성수기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시설부족 현상 및 서비스 한계와 비효율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3) 초기 및 운영자금의 제한으로 개발확대 및 운영 활성화가 문제되고 있으며, 4) 관광농원 개발시설이 지역개발계획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5) 경영기술의 한계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박호균, 2002).

선행연구의 사례를 보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농촌관광의 결실이 소수의 지역주민이나 외부 투자자들에게 연계되지 않고, 개발의 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역주민 사업능력 향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민상기 외, 1995).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취소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엄격한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에 인력이 동원되어 신규 지정된 관광농원이 해마다 약 10%씩 중단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유승우 외(1997)의 연구를 보면 전체 취소되는 농원의 44%가 개발의욕 부족을, 25.3%가 부실운동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또한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지정된 농원이 전체 취소농원의 40%를 차지했는데, 이 기간에 비 농민과 다른 지역 이주자의 사업참여가 한시적으로 가능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개발의욕 부족이나 부실운영이라는 이유는 너무 포괄적이고 자

의적인 해석일 뿐더러, 정책반영에는 막연한 근거이다. 따라서 관광농원이 지속성(sustainability)을 지니는 현상을 추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적정 자료를 통한 실증적 분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가 농외소득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온 한국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지침을 분석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의 원인과 경과 및 시사점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바람직한 미래 농촌관광사업의 농촌사회 이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지리적 범위는 농림부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농촌관광농원이 위치한 지역이다. 분석의 대상인 관광농원은 농촌관광을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조직의 한 형태로서,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이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전국 320개소 관광농원에 대한 농림부의 1999년 등급분류 평가 자료를 모집단으로 한다. 또한 박호균 외(2001)에 의해 2001년 2월에 전화 설문을 통하여 확인된 영업을 중지하였거나 지속을 종료한 관광농원을 파악한 후속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표 1에 있는 변인들은 농림부의 평가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모두 7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23개의 세부 변인으로 구성되어 사용하였다.

개별 변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호균(2002)와 박호균 외(2001)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농림부의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바탕으로 관광농원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개별 지표들의 직-간접효과 및 변인간 우열 측정을 통해 지표선정 및 비중의 적정성과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지표에 대한 사업지속성의 판정은 개별 지표들의 사업성패에 대한 다양한 직-간접효과로 설명되는데 이러한 분석은 종속변인과 다양한 독립변인간의 영향관계가 구명되어야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간 직-간접효과와 독립변인에 대한 비중의 설명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이 가장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의 기본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산업의 성과를 가름하는 지표별 직-간접효과 및 비중을 규명할 것이다. 경로분석을 이용한 분석은 박호균 외(2001)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대로 주요한 7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총점수를 통해 개별 독립변인들이 관광농원 경영평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¹⁾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관광농원의 독립변인들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총점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즉 총점수를 통해 관광농원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으므로 관광농원이 획득한 총점수에 대해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²⁾ 구조모형은 회귀모형과 달리 종속변인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각 독립변인은 종속변인들 중에서 일부와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된다(박광배, 2000). 이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계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독립변인들이 총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3가지 단계의 경로를 거치는데: 1) 어떤 독립변인들은 총점수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주는 경로가 있으며, 이 경로를 기초로 하여 각 독립변인과 총점수의 가설된 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2) 관광농원의 수익성 독립변인그룹을 통해 개별 독립변인들이 총점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있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은 총점수의 인과관계 모델을 통해 발견된다; 3) 독립변인들이 총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와 수익성 독립변인그룹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합쳐 총점수에 대한 총효과를 얻을 수 있다.³⁾

총점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다중회귀분석으로 총점수에 대한 모든 독립변인의 유의미한 계수를 추정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유의미한 것은 각 독립변인의 계수에 그들의 표준오차를 나누어 얻을 수 있는 t-test를 통해 t 값이 10% 유의수준($p < 0.1$)에서 기각되어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계수들은 상대적으로 각 독립변인들이 총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한 독립변인들의 계수대신 y절편이 0인 표준화된 회귀가중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를

표 1. 분석에 사용한 변인 설명

변인명		코드	변인 설명
지속여부		sus	0:중단, 1:지속
농외소득		X1	13점
	참여농가	X11	5점
	호당소득	X12	4점
조성적정성	판매액	X13	4점(1:1천-2천, 2:2천-3천, 3:3천-4천, 4:4천이상)
		X2	33점
	작목입식면적	X21	5점(1:40-50%, 2:50-60%, 3:60-70%, 4:80-90%, 5:80%이상)
	작목입식다양성	X22	5점(2:2종, 3:3종, 4:4종, 5:5종이상)
	작목입식특색성	X23	6점(2:1종, 3:2종, 4:3종, 5:4종, 6:5종이상)
	영농체협활용도	X24	6점(2:20-30%, 3:30-40%, 4:40-50%, 5:50-60%, 6:60%이상)
	시설물	X25	5점(1:40-50%, 2:50-60%, 3:60-70%, 4:80-90%, 5:80%이상)
	자연환경조화성	X26	3점(1:보통, 2:우수, 3:탁월)
	주민호응도	X27	3점(1:보통, 2:호의적, 3:적극적)
입지조건		X3	12점
	주변관광자원	X31	3점(1:1개소, 2:2개소, 3:3개소이상)
	교통여건	X32	2점
	배후도시	X33	5점
	기타	X34	2점(1:보통, 2:우수) 지역특성(자연경관 50%, 농업여건 50%)
홍보이벤트		X4	5점
	홍보실적	X41	2점(1:2건, 2:3건이상)
	이벤트	X42	3점(1:2건, 2:3건, 3:4건이상)
재무상태		X5	10점
	자기자본	X51	5점(2:30-40%, 3:40-60%, 4:60-80%, 5:80%이상)
	상환능력	X52	5점(1:110-130%, 2점:90-110%, 3점:70-90%, 4점:50-70%, 5점:50%이하)
수익성		X6	15점
	투자수익	X61	5점(1:5%미만, 2:5-8%, 3:8-10%, 4:10-13%, 5:13%이상)
	매출증가	X62	5점(1:5%미만, 2:5-10%, 3:10-15%, 4:15-20%, 5:20%이상)
	경영성과	X63	5점(1:그외, 2:전년도후자, 3:최근2년후자, 4:최근3년후자, 5:3년후자이고 순이익증가)
대표자		X7	12점
	신용도	X71	8점
	경영능력	X72	4점(2:보통, 3:우수, 4:탁월)
등급	평가등급00	grad	1등급(85이상) 2등급(84-70) 3등급(69-60) 4등급(59이하 특별관리)

이용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각 독립변인들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Kachigan, 1986). 더 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총점수를 높이는 데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독립변인의 영역별 총점수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역 모두가 총점수에 미치는 영향인 R-square와 개별 집단이 총점수에 미치는 영향인 Partial R-square를 이용할 수 있다.

VI. 분석 결과

1. 관광농원 지속가능성 분석 모형(경로분석 모델)

관광농원이 지속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프라빗 모델 분석이외에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7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총점수를 통해 개별 독립변인들이 관광농원 경영평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표 2는 표 1에서 제시된 독립변인들이 종합점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다.

표 2에서 채택된 모든 독립변인들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25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독립변인들의 VIF가 10 미만임을 알 수 있었다. Myers(1990)는 VIF가 10 미만일 경우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믿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력은 R-square가 99.52%로 아주 높아 각 독립변인들은 총점수를 대부분 다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모든 독립변인들은 1% 미만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리고 독립변인에 대한 설명은 이미 살펴보았으나, 독립변인들을 포함하는 독립변인그룹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각 독립변인들의 순서를 고려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농외소득 그룹내의 세 개의 독립변인인 참여농가, 호당소득, 판매액은 총점수에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각각 0.0953, 0.0908, 0.0951로서, 모든 독립변인들의 순서를 고려하여 볼 때 각각 11, 14, 12위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조성적정성의 독립그룹의 경우 7개의 독립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록 총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개개의 편차가 크게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순위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조성적정성이 총점수

를 설명하는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주어진 표 2와 표 3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표 2를 보면 조성적정성내에 들어있는 독립변인 중 1위인 영농체험과 3위인 작목입식의 특색성, 그리고 4위를 차지하는 시설물 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위를 차지한 자연환경과 20위를 차지한 주민호응과 같은 변인들로 인해 표 3에서 보듯 Partial R-square가 0.6589로 총점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인그룹 중 3번째로 나타났다.

4개의 독립변인 중 13위를 차지한 배후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의 독립변인들은 모두 최하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지조건인 Partial R-square 역시 입지조건인 독립변인그룹은 제일 낮아 총점수에 대한 설명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 홍보이벤트의 독립변인그룹은 두 개의 독립변인인 홍보와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순위가 19위, 15위로 총점수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프라빗 개별 항목분석결과와는 어느 정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높은 총점수를 얻은 관광농원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무상태의 경우는 수익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점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변인들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특히 상환능력변인은 계수가 0.1203으로 그 순위가 2위를 차지하여 Partial R-square를 0.4604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하였다.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투자수익이 10위, 매출증가가 6위, 경영성도가 7위로 5위 안 최고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위권에 포진함으로써 Partial R-square를 72.41%로 제일 높게 만들어 총점수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음을 보였다. 이로써 비록 수익성 독립변인그룹이 제일 높은 순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총점수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 독립변인이 총점수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고 따라서 다른 기타독립변인들이 이 독립변인들을 통해 총점수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 독립변인들을 통한 총점수의 간접효과를 측정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독립변인그룹 중 신

용도 독립변인은 회귀분석에서의 결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robit을 이용하여 측정 한 선행연구와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박호균 외, 2001). 경영능력 독립변인은 Partial R-square가 수익성 독립변인그룹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각 독립변인그룹의 총점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Partial R-square는 각 독립변인그룹이 하나씩 추가

될 때 생기는 R-square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표 3에서 볼 수 있다. 즉 농외소득 변인그룹이 총점수를 설명하는 R-square는 47.9% 이고, 농외소득에 조성적정성을 더하여 만들어진 농외소득을 포함한 조성적정성 변인그룹이 총점수를 설명하는 R-square는 82.23%이다. 그런데 이 82.23%에는 농외소득 변인그룹이 설명하는 47.9%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시

표 2. 관광농원의 농외소득, 조성적정성, 입지조건, 홍보이벤트, 재무상태, 수익성, 대표자들의 종합 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인	Parameter Estimate	T- Value	Standardized Estimate	Rank
Intercept	-0.3108	-0.62	0	
참여능가(X11)	0.9285	20.63	0.0953 ***	(11)
호당소득(X12)	1.0256	16.75	0.0908 ***	(14)
판매액(X13)	0.9758	17.21	0.0951 ***	(12)
작목입식면적(X21)	0.9513	20.44	0.102 ***	(8)
작목입식다양성(X22)	1.0598	17.47	0.1016 ***	(9)
작목입식특색성(X23)	1.031	18.3	0.1201 ***	(3)
영농체험활용도(X24)	1.0097	23.43	0.1353 ***	(1)
시설물(X25)	1.0101	21.03	0.1137 ***	(4)
자연환경조화성(X26)	1.0283	10.76	0.0598 ***	(18)
주민호응도(X27)	0.8717	8.15	0.0462 ***	(20)
주변관광자원(X31)	1.1452	8.27	0.0412 ***	(21)
교통여건(X32)	0.992	9.14	0.0404 ***	(22)
배후도시(X33)	0.9931	19.25	0.091 ***	(13)
기타(X34)	1.0636	6.45	0.0339 ***	(23)
홍보실적(X41)	0.8838	8.1	0.0463 ***	(19)
이벤트(X42)	1.0356	14.76	0.087 ***	(15)
자기자본(X51)	1.0607	14.7	0.0741 ***	(16)
상환능력(X52)	1.0977	23.38	0.1203 ***	(2)
투자수익(X61)	0.8891	16.77	0.1009 ***	(10)
매출증가(X62)	1.0086	18.7	0.1066 ***	(6)
경영성과(X63)	1.0161	18.21	0.1026 ***	(7)
신용도(X71)	0.9393	21.02	0.1095 ***	(5)
경영능력(X72)	1.0494	11.53	0.0631 ***	(17)
R-Square			0.9952	
Adj R.S			0.9948	
sample				303

*** : p<0.01

켜야 조성적정성 변인그룹만이 총점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Partial R-square로, 이는 Newman and Ducan(1978)이 설명하였듯이 $(R^2_{with} - R^2_{without}) / (1 - R^2_{without})$ 와 같은 식을 이용해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계산과정은 표 2의 각주에 잘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식을 통해 얻어진 총점수에 대한 조성적정성만으로 Partial R-square는 65.89%로써 농외소득만이 총점수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 각 독립변인그룹의 총점수에 대한 Partial R-square는 표 3과 같이 수익성 독립변인그룹이 72.4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표자 독립변인그룹이 72.25%로 총점수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Partial R-square를 나타냈다. 따라서 수익성 독립변인그룹에서 총점수를 설명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여타 다른 독립변인들은 수익성 독립변인그룹에 포함된 투자수익율이나 매출증가비용, 그리고 경영성과 등의 독립변인들을 통해 총점수에 영향을 끼칠 개연성 역시 커지게 된다.

표 4는 총점수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변인과 계수를 보여준다. 개별독립변인은 경영성과와 매출액증가율 그리고 투자수익율에 영향을 주고 이들 세 변인이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점수에 대한 개별변인의 간접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먼저 경영성과와의 간접효과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아래와 같다.

경영성과

- X12 :호당소득 (p<0.01)
- X13 :판매액 (p<0.1)
- X41 :홍보 (p<0.1)
- X42 :이벤트 (p<0.1)
- X52 :상환능력 (p<0.1)

경영성과를 통해 총점수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인 호당소득·판매액·홍보·이벤트·상환능력 등은 모두 정(+)의 관계를 보인다. 즉 이 호당소득이 많고 판매액이 증가하며 홍보나 이벤트를 많이하며 상환능력이 좋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매출액증가율변인 중 유의미한 변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매출액증가율

- X25 : 자연환경 (p<0.1)
- X34 : 기타 (p<0.1)
- X63 : 경영성과 (p<0.01)

자연환경·경영성과 및 기타(지역적 특색) 등의 독립변인은 매출액증가율과 정(+)으로 상관 (correlated) 되어 영향을 미쳐 총점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즉, 자연환경이 좋아질수록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할수록

표 3. 농외소득, 조성적정성, 입지조건, 홍보이벤트, 재무상태, 수익성, 대표자의 총점수에 대한 Total R²와 Partial R²

변인그룹	Total R ²	Total R ² *
농외소득(X1)	0.4790	0.4790
조성적정성(X2) (+농외소득)	0.8223	0.6589
입지조건(X3) (+농외소득+조성적정성)	0.8563	0.1913
홍보이벤트(X4) (+입지조건+농외소득+조성적정성)	0.8838	0.1914
재무상태(X5) (+홍보이벤트+입지조건+농외소득+조성적정성)	0.9373	0.4604
수익성(X6) (+재무상태+홍보이벤트+입지조건+농외소득+조성적정성)	0.9827	0.7241
대표자(X7) (+수익성+재무상태+홍보이벤트+입지조건+농외소득+조성적정성)	0.9952	0.7225

*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R^2_{with} - R^2_{without}) / (1 - R^2_{without})$. 여기서 R²_{with}은 현재의 주어진 변인그룹과 그 이전단계의 그룹들이 총점수를 설명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R²_{without}은 현재의 주어진 변인그룹을 제외한 그 이전단계의 모든 그룹들이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Newman and Ducan, 1978; Varady, 1983).

매출액증가율이 높아져 다시 총점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경영성과는 매출액증가율에 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영성과가 좋으면 매출액증가율이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경영성과와 매출액증가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경영성과를 통해 총점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와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점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을 통해 총점수에 정(+)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판매액·주민호응·교통여건·상환능력·매출액증가율·경영성과 등이고 부(-)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특색성·이벤트·자기자본비율 등의 변인이다. 이 중 판매액·주민호응·교통여건·상환능력은 투자수익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이다. 그리고 매출액증

표 4.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간접효과와 Beta계수		
	경영성과(x63)	매출증가율(x62)	투자수익율(x61)
Intercept	0	0	0
참여농가(X11)	0.0165	-0.06504	-0.03502
호당소득(X12)	0.19332 ***	0.0886	0.08313
판매액(X13)	0.11822 *	0.08492	0.12185 **
작목입식면적(X21)	-0.05283	-0.06273	0.17598
작목입식다양성(X22)	-0.06758	0.05149	0.02604
작목입식특색성(X23)	-0.05511	-0.02730	-0.14817 **
영농체험활용도(X24)	-0.03836	0.01099	0.03047
시설물(X25)	0.07378	0.10291 *	0.02823
자연환경조화성(X26)	0.07286	-0.00313	-0.08284
주민호응도(X27)	0.00226	0.03809	0.11252 **
주변관광자원(X31)	0.01661	-0.05231	0.05725
교통여건(X32)	0.02705	-0.02526	0.10178 **
배후도시(X33)	0.08593	0.02502	-0.00351
기타(X34)	0.02585	0.10102 *	0.03345
홍보실적(X41)	0.11432 *	0.07017	0.04083
이벤트(X42)	0.12197 *	0.03185	-0.13713 **
자기자본(X51)	-0.06292	0.03534	-0.09282 *
상환능력(X52)	0.10787 *	-0.05908	0.30577 ***
매출증가(X62)	0.2729 ***		
경영성과(X63)		0.37485 ***	0.25923 ***
신용도(X71)	0.07718	0.07114	0.01237
경영능력(X72)	0.09342	0.05629	-0.0041
R-Square	0.3112	0.4193	0.5224
Adj R.S	0.2623	0.3760	0.4849
Sample	303	303	303

*** p<0.01 ** p<0.05 * p<0.1

가율과 경영성고가 투자수익률과 정(+)으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들이 이 세 변수와 모두 영향관계를 가질 경우 그 독립변인은 투자수익률 외에 매출액증가율과 경영성고를 거쳐 총점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부(-)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특색성·이벤트·자기자본비율 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작목입식의 특색성이 다양할수록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투자비용이 늘어나 실제 투자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벤트도 많이 행하게 되면 투자비용이 증대되어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은 자기자본이 투입된 관광농원 일수록 안이한 경영을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이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 5. 투자수익률에 유의미한 변인

정(+)의 효과	부(-)의 효과
X13 : 판매액 (p<0.05)	
X27 : 주민호응 (p<0.05)	X23 : 특색성 (p<0.05)
X32 : 교통여건 (p<0.05)	X42 : 이벤트 (p<0.05)
X52 : 상환능력 (p<0.01)	X51 : 자기자본비율 (p<0.1)
X62 : 매출액증가율 (p<0.01)	
X63 : 경영성과 (p<0.01)	

이번에는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과 개별독립변인들의 총점수에 대한 총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총점수(G)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총효과가 두 가지의 효과로 분석되는 것은 다음의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영성과(X61), 매출액증가율(X62), 투자수익률(X63), 개별독립변인(I)이 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식은 아래 식(1)과 같다.

$$G = \alpha + \beta_1 X_{61} + \beta_2 X_{62} + \beta_3 X_{63} + \beta_4 I \quad (1)$$

그런데, 개별독립변인들과 경영성과(X61), 매출액증가율(X62), 투자수익률(X63)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들의 연관성을 다음의 식 (2), 식 (3), 식 (4)으로 나타낼 수 있다.

$$X_{63} = \alpha_2 + \beta_5 X_{61} + \beta_6 X_{62} + \beta_7 I \quad (2)$$

$$X_{62} = \alpha_3 + \beta_8 X_{61} + \beta_9 \quad (3)$$

$$X_{61} = \alpha_4 + \beta_{10} I \quad (4)$$

이제, 식 (2), 식 (3), 식 (4)를 식 (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5)와 같이 정리된다.

$$G = \alpha + \beta_1 \alpha_4 + \beta_2 \alpha_3 + \beta_3 \alpha_2 + \beta_3 \beta_5 \alpha_3 + \beta_2 \beta_8 \alpha_4 + \beta_3 \beta_5 \alpha_4 + \beta_3 \beta_6 \alpha_4 + (\beta_4 \beta_1 \alpha_{10} + \beta_2 \beta_9 + \beta_3 \beta_7 + \beta_2 \beta_8 \beta_{10} + \beta_3 \beta_6 \beta_9 + \beta_3 \beta_5 \beta_{10} + \beta_3 \beta_6 \beta_8 \beta_{10}) \times I \quad (5)$$

여기서, 식 (5)는 개별 독립변인들이 경영성과(X61), 매출액증가율(X62), 투자수익률(X63)과 연관되어 총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개별 독립변인만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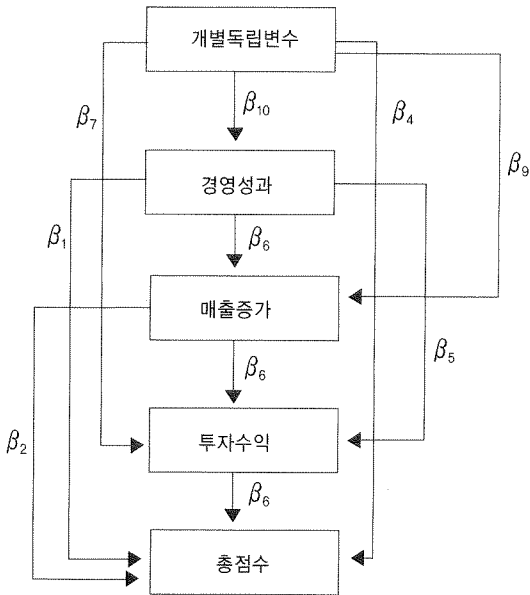
이러한 개별 독립변인들(I)이 총점수(G)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인 β_4 와 $\beta_1 \beta_{10} + \beta_2 \beta_9 + \beta_3 \beta_7 + \beta_2 \beta_8 \beta_{10} + \beta_3 \beta_6 \beta_9 + \beta_3 \beta_5 \beta_{10} + \beta_3 \beta_6 \beta_8 \beta_{10}$ 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개별독립변인이 경영성과와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을 거쳐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그림 1의 경로와 같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그림 1에서 β_4 는 개별독립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총점수에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를 따라 표현되고 있으며 개별독립변인들이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을 거쳐서 총점수에 영향을 끼칠 효과는 $\beta_3 \beta_6 \beta_8 \beta_{10}$ 의 경로를 따라 표현된다.

나머지 계수들도 모두 이러한 경로를 따라 표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수값들을 이용하여 분석되는 것은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독립변인들이 직접적으로 총점수에 미치는 효과는 표 2의 표준화된 계수를 통해 드러나 있으므로 독립변인들이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을 통해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간접효과를 측정해야 총효과를 구할 수 있다. 앞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개별독립변인 계수가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을 통해 어떻게 총점수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그림 2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된 간접효과와 경로를 실제 표준화된 계수를 이용해 구하면 표 6과 같다. 그리고 위에서 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경로와 beta 계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별항목에 대한 간접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 전체 효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의 분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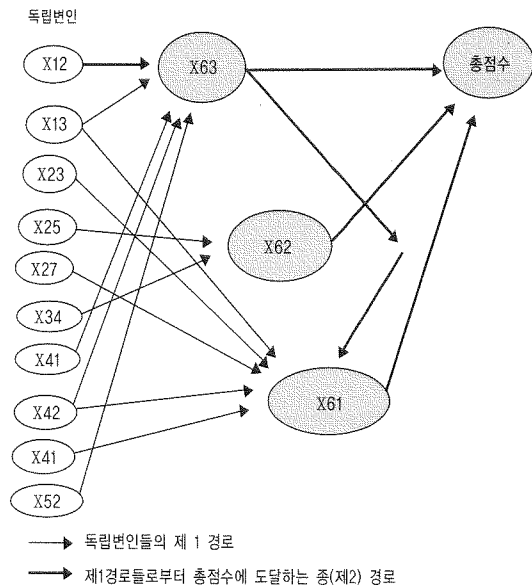
이외에도 간접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직접효과만으로 개별독립변인이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실제 총효과를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간접효과까지도 측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접효과까지 고려한 총효과는 종속변인에 대한 개별독립변인의 영향에 대해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주어진 표 2와 표 7을 비교해 볼 때, 독립변인들의 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독립변인들이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에 대해 간접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에 보여지고 있다.

즉, 직접효과만을 고려하여 단순히 독립변인에 대한 계수만으로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순위와 간접효과

를 고려하여 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를 비교해 보면, 간접효과를 거칠 경우 수익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경우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총점수에 더 높은 영향을 끼치며, 부(-)의 관계를 가질 경우는 직접효과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더욱 낮은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중 독립변인 상환능력(X52)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2순위였는데, 이 상환능력변인이 수익성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직접효과에서 1위를 차지하였지만 수익성과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 영농체험활용도를 2위로 떨어지게 하면서 1순위로 총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에서 3순위를 차지하며 총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작목입식특색성은 수익성과 부(-)의 관계를 맺으면서 간접효과가 부(-)로 나타나 7위로 밀려났다.

그림 2. 독립변인들이 간접경로를 통한 총점수에 미치는 영향



* 통계치들은 303 샘플에 근거하였다. 모든 경로들은 통계적으로 t 값이 유의미한 p<0.1인 경우를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경로 계수들은 이 경로에서 보여지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표 7에 표시하였다. 간접효과는 전체점수와 개별항목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결된 경로이다. 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다른 경로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로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1) 박호균 외(2001)의 프라빗 분석에서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변인들 경우와 달리 경제적 지속성을 결정하는 변인들 중에서 상환능력(X52), 호당소득(X12), 농산물 판매액(X13) 등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경영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거나 관광농원의 매력(attraction)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예를 들어 시설물(X25), 농촌체험(X24), 입식면적(X21), 입식 다양성(X22) 등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경영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입식특색성(X23)은 투자수익에는 부(-)로 영향을 주어 간접효과는 (-)이지만 직접효과는 정(+)으로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지조건이나 기타 변인들은 비교적 경영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농촌 어메니티와 관광매력은 농촌관광이나 관광농원의 중요한 생산물이자 존재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물의 성격상 결합생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표 6. 간접효과의 경로를 따라 실제 표준화된 계수

경영성과	매출증가율	투자수익률	총점수
호당소득(X12)			
a)---	(0.19332)		(0.10257)
판매액(X13)			
a)---	(0.11822)		(0.10257)
b)---	(0.11822)	(0.25923)	(0.1009)
c)-----		(0.12185)	(0.1009)
작목입식특색성(X23)			
a)-----		(-0.14817)	(0.1009)
시설물(X25)			
a)-----	(0.10291)		(0.10655)
주민호응도(X27)			
a)-----	(0.11252)		(0.1009)
기타(X34)			
a)-----	(0.10102)		(0.10655)
홍보실적(X41)			
a)---	(0.11432)		(0.10257)
이벤트(X42)			
a)---	(0.12197)		(0.10257)
b)---	(0.12197)	(0.25923)	(0.1009)
c)-----		(-0.13713)	(0.1009)
자기자본(X51)			
a)-----		(-0.09282)	(0.1009)
상환능력(X52)			
a)---	(0.10787)		(0.10257)
b)---	(0.10787)	(0.25923)	(0.1009)
c)-----		(0.30577)	(0.1009)

많다. 결합되어 나타나는 생산물들 모두에 소비자 이용에 있어서 배타성(excludability)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관광의 현장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무임승차(free rider)로 시장을 통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농외소득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온 한국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분석하고, 결과의 원인과 경과 및 시사점을 밝혀 바람직한 미래 농촌관광의 토대로 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사례인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 상실 현상을 연구하여 지속가능성 상실의 본질과 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관광에서의 공공부문 시장개입의 당위성과 방법론을 논의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광농원의 지속성에 주민호응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2-3인 참여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성적적성과 관련된 변인들 주에서 다양성(X22)은 부(-)의 관계로 특색성(X23)은 정(+)의 관계로 지속가능성에 유의하다는 결과는 관광농원이 특색성(X23)을 지니고 관광객을 유인(pull)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산과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저하시키게 됨을 보여준다. 경로분석을 통한 간접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특색성(X23)은 투자수익(X61)에 부(-)의 효과를 주지만 시설물(X25)이나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색(X34)은 매출증가(X62)에는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관광농원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시설투자와 경관유지를 통해 관광매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과, 생산자의

표 7. 개별독립변수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변 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순 위
참여농가(X11)	0.0953		0.0953	10
호당소득(X12)	0.0908	0.01983	0.1107	5
판매액(X13)	0.0951	0.02751	0.1226	4
작목입식면적(X21)	0.102		0.1020	8
작목입식다양성(X22)	0.1016		0.1016	9
작목입식특색성(X23)	0.1201	-0.01495	0.1051	7
영농체험활용도(X24)	0.1353		0.1353	2
시설물(X25)	0.1137	0.01097	0.1246	3
자연환경조화성(X26)	0.0598		0.0598	15
주민호응도(X27)	0.0462	0.01135	0.0575	20
주변관광자원(X31)	0.0412		0.0412	18
교통여건(X32)	0.0404		0.0404	19
배후도시(X33)	0.091		0.0910	11
기타(X34)	0.0339	0.01076	0.0446	17
홍보실적(X41)	0.0463	0.01173	0.0580	16
이벤트(X42)	0.087	0.00186	0.0889	12
자기자본(X51)	0.0741	-0.00937	0.0647	13
상환능력(X52)	0.1203	0.04468	0.1650	1
신용도(X71)	0.1095		0.1095	6
경영능력(X72)	0.0631		0.0631	14

생산 및 비용함수가 투입 생산요소들만의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농촌관광 생산물이 결합형태로 나타나므로 수익원도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경제적 지속성을 결정하는 변인들 중, 상환능력(X52), 호당소득(X12), 농산물 판매액(X13) 등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경영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설물, 농촌체험, 입식면적, 입식다양성 등과 같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거나 관광농원의 매력(attraction)을 구성하는 변인들은 직-간접적 효과를 통해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식특색성은 투자수익에는 부(-)로 영향을 주어 간접효과는 (-)이지만 직접효과는 정(+)으로 경영평가에 영향을 주었으나, 입지조건이나 기타 변인들은 비교적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 농업의 단면만을 강조하고 상업화하는 농업관광이나 생태관광이나 녹색관광으로 불리는 것 또한 농촌의 공간활용이나 농업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경향은 농촌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은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수용력(cultural capacity), 공간적 수용력(carrying capacity), 그리고 문화적 수용능력과 공간적 수용능력을 지원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는 제도적 기능으로 그린벨트 같은 법적 제도와 중앙/지방정부 정책, 그리고 공공부분의 개입이 상호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는 농촌지역사회의 지속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성이 있고, 서로 상승작용(synergy effect)을 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이라는 공간과 관광사업을 접목시켜야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이 비로소 사회에서 당위성과 공익에 대해 정서적 공감대와 논리적 준거를 지니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관광농원 사업지침 효율성 평가를 통해 밝혀

진 문제점 제시로 기타 농림부 사업 평가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초 농림부 내부에서 논의된 최초의 지표 및 지침들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농림부가 시행한 관광농원의 평가척도가 관광농원의 지속성여부를 효율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 추후 실시될 농림부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들에 대한 비중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용은 실증분석을 통해 기 실시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농림부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

- 1) 본 연구에서는 지속여부 회귀 모델에 대한 변인 선택 기준으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변인팽창계수는 각각의 VIF가 10인 직교 데이터보다 $\hat{\beta}$ 몇 배가 더 큰 다중공선성 데이터인지를 설명해주는 확실한 지표이다. 이 통계방법에 의한 대략적인 측정값은 10이며 (Chatterjee and Price, 1991; Kennedy, 1992) 본 연구에서도 이 값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변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개별 독립변인에 대한 점수의 배정은 농림부가 배정한 기본 자료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배정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개별 관광농원이 농림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획득한 총 점수다. 경로모형의 설정에 따라 설정된 하부 종속변수 역시 그 합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변수들의 개별 점수에 대한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횡단면자료임에도 불구하고 R-square/Adj. R-square로 나타나는 모형의 설명력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경우 총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인간의 직-간접 영향을 나타내는 모수의 방향 및 크기가 주된 분석대상이며, 모형의 설명력은 큰 의미가 없다.

인용 문헌

1. 농림부. 2001. 농의소득증대 증장기 추진계획.
2.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3. 관광농원 경영실태와 발전방향 조사연구보고. 93-10.
3. 류선무. 1995.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농림부.
4. 민상기 외. 1995.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연구자료 D1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박광배. 2000.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6. 박호균. 2002. 한국 관광농원의 지속가능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박호균, 유성호, 이성우. 2001. "한국관광농업 실태 조사분석과 농촌관광 발전 전략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6(1):45-73.
8. 박호균, 정지웅. 2000. "농촌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선린촌(1967-1999)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25(1):227-242.
9. 유승우. 1999. "우리나라 관광농원개발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관광농업학회 발표자료(1999,5,15).
10. 유승우, 김정연. 1997.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보고 R3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서종혁. 1995. "한국관광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강원도 관광농업 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11-29.
12. 한국관광공사. 1996.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13. Brandon. K., 1993. Basic Steps Toward Encouraging Local Participation in Nature Tourism Projects. In Lindberg K, Hawkins DE (eds.), *Ecotourism: A Guide for Planners and Managers*. Vermont: The Ecotourism Society. North Bennington, 134-151.
14. Burns, P.M., Holden, A., 1995. *Tourism: A new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15. Chatterjee, S., Price, B., 1991.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6. Kachigan, S.K., 1986.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Radius Press.
17. Kennedy, P., 1992. *A Guide to Econometric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8. Myers, R.H., 1990.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s*, Boston: PWS-Kent Publishing Company.
19. Newman, S., Ducan, G., 1978. Residential Problems Dissatisfaction and Mobility.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5(Apr.):154-166.
20. OECD. 1994.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to rural development*. OECD.
21. OECD. 1996. *Amenities for Rural Development- Policy Examples*. OECD.
22.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OECD.
23. Pearce, P., Moscardo, G., Ross, G., 1996. *Tourism Community Relationships*. Tarrytown, New York: Elsevier Science Ltd.
24. Sharpley, R., Sharpley, J., 1997. *Rural tourism: An introduction*, Boston, MA: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25. Varady, D.P., 1983. Determinants of Residential Mo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49(2): 184-199.